

경제

# 광주·전남 수출기업 '이란제재' 직격탄

## 금융 제재 돌입 ... 25개사 직간접 피해 기아차·신한포토닉스 수출 전면 중단

정부가 8일 금융거래 금지 등 이란 제재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수출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우리나라가 본격 제재를 시행키로 하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은 25곳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금호타이어, 대륜벨트, 신한포토닉스 등 광주지역 10개 업체와 금호파이버화학, 제일모직, 조선내화, 디에스알제강 등 전남

지역 15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3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이란에 수출한 금액은 4억9544만달러(광주 2억 6834만달러, 전남 2억2710만달러)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2억 9306만달러로 집계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후 지난 6월 4029만달러, 7월 3751만달러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대(對)이란 수출 품목은 지역전략산업인 냉장동차 부품, 타이어 제품 등이 주종으로 대기업 비중이 커 큰 피해가 우려

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661대를 이란에 판매했던 기아자동차는 지난달부터 전면 수출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물량은 1000여대 정도다.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광산업계도 피해를 입고 있다.

광통신부품업체인 신한포토닉스는 1개월 평균 4만달러 정도 수출했는데 지난달부터 수출을 중단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란 정부가 200% 관세를 물리겠다는데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며 "이란이 광통신(FTTX) 신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수출길이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타이어용 특수벨트 제조업체인 대륜벨트도 긴장하고 있다.

대륜벨트 관계자는 "이란에 연 10만달러 규모의 특수벨트를 수출하고 있다"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

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광주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업체들은 수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를 받지 않는 중동 등 외국 공장에서 수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끝자는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벨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 금융제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푸틴 총리 방문** 블라디미르(왼쪽) 푸틴 러시아 총리가 7일(현지시간) 이즈아프토 공장을 방문, 기아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러시아 기아차 조립공장 재가동될듯 2008년 금융위기 조업중단 후 생산재개 협의 나서

기아자동차의 '스펙트라'와 구형 '쏘렌토'를 조립 생산하다가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조업이 중단됐던 러시아의 이즈아프토(Izh-AVTO)사 공장이 연말께 재가동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기아차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1100km 떨어진 이제프스크의 이즈아프토 공장에서 기아차를 다시 조립 생산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며,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7일(현지시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이 공장을 전격 방문, 기아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막판 협상 타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즈아프토 측은 기아차 스펙트라

와 쏘렌토를 4만5000대 생산하는 것 외에 현대차의 트럭도 1만5000대 가량 생산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놓고 현대차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준공된 이즈아프토의 기아차 조립공장은 2006년에 3만3000대, 2007년 4만대, 2008년에는 2만9000대를 조립 생산한 바 있다.

이즈아프토는 옛 소련 시절 '이즈브렌드'의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22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즈아프토는 현재 약 145억루블(4억9800만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만 러시아 은행 스베르방크에 지고 있다. 주 채권은행인 스베르방크는 기아차와의 협상이 이뤄지면 생산 재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현대·기아차 주가 연중 최고가 경신 日 업체 감사소식 호재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감사 소식에 탄력을 받아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8일 니혼게이아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의 주력 차종인 프리우스를 생산하는 아이치현 도요타시 공장의 경우 내달 생산이 이번달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소형 미니밴인 '프리도'를 생산하는 사이타마 공장도 내달 생산량을 10% 줄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품질 개선, 신차 출시 효과와 함께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전하던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반사 효과에 따른 추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며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장중 15만30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가 15만원 선을 넘기기는 지난 8월 2일과 3일(종가 기준) 이후 역대 3번째다.

기아차 역시 상장 이후 처음으로 3만4000원 선을 넘었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6월 7일의 3만3700원이었다. /연합뉴스

## 정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탄기공사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779.22 (-8.52)
코스닥지수	478.60 (-1.60)
금리 (국고채 3년)	3.61% (-0.02)
원·달러 환율	1,172.80원 (-4.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대기업 기부금 두배 늘었다

올 상반기 2472억 ... 삼성전자 934억 '기부왕'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주요 대기업들의 기부금이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기부금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대기업들의 올 상반기 기부금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총 247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조사 대상 10개사가 같은 기간 기부금으로 사용한 903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올 상반기에만 934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삼성전자에 이어서는 SK텔레콤이 524억원으로 두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위는 410억원의 기부금을 낸 KT였다. 이어 SK에너지가 145억원, 포스코가 122억원, 현대자동차가 112억원, 현대중공업이 105억원, 한국전력이 79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우수 창조기업 제품전** '녹색성장'과 창조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8일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와 함께 열린 '우수 창조기업 제품전'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 500대 기업 직원수 1년간 고작 1.5% 늘었다

삼성전자 6183명 최대 4%인 222곳은 직원 수가 그대로 (20곳)이거나 줄었다.

지난 1년간 매출 500대 기업의 직원 수가 1.5%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설전문업체 아인스파트너는 지난해와 올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총 직원 수는 92만752명으로 작년보다 1.5%(1만358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밝혔다.

이들 중 55.6%인 278곳이 작년보다 올해 직원을 늘렸지만 44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직원 증가율은 작년 대비 3.7%(9129명)였고 상위 100대 기업은 2.8%(1만7957명)로 500대 기업의 증가율을 웃돌았다.

지난 1년 새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6183명을 기록한 삼성전자였고, 그다음 LG디스플레이(LGD) 6013명, LG전자 2810명, 현대제철 995명, LG화학 743명, 삼성엔지니어링 737명, 효성 664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 금호석화, 中 선양에 전자재 공장 준공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중국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고급 전자재 생산공장을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7만8000㎡ 규모의 이 공장은 단열성과 압축강도가 좋아 건물 내·외벽과 바닥 단열재, 냉방·냉동 단열재 용도로 쓰이는 고품형 XPS(Extruded Polystyrene Foam)를 연간 6400t을 생산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선양시 산하 기업인 심양화학공업건설투자 유한공사가 8대 2 지분율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해 합작법인인 금호석화심양 유한공사를 설립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중국의 신성장 경제권의 동북 3성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설립해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연간 2000만 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건축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전남(061)  
목포(삼화) 274-5987 순천 744-8605  
목포(건영) 243-7463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공공 업무용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 특허받은 국내 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 때가 타지 않는 고품격 코팅으로 내구성 지속
- 세라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음선]

● 친환경 & 완벽방수  
● 단열 & 리모델링효과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사 (061) 284-0485 순천지사 (061) 726-0482  
여수지사 (061) 683-0485 광양지사 (061) 795-0485